

## 2024.01.30.(화) 증권사리포트

만든 날짜: 2024-01-30 오전 4:23

수정한 날짜: 2024-01-30 오전 4:30

2024.01.30.(화) 증권사리포트

LG이노텍

과매도 상태이나, 뚜렷한 실적 모멘텀이 안 보인다

[\[출처\] BNK투자증권 이민희 애널리스트](#)

비수기 진입, 1Q24 영업이익 1,038억원(-79%QoQ, -29%YoY) 예상

주력 사업인 광학솔루션 매출은 지난 4Q23에 분기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1Q24에는 비수기 진입 영향으로 3.7조원(-45%QoQ, 5%YoY)이 예상되며, OPM 2.3%(-0.4%pt YoY)로 전망된다. 그 외 매출로 기판소재 0.32조원(-3%QoQ, -4%YoY), 전장 및 전자부품 0.49조원(3%QoQ, -2%YoY)이 예상되며, 각각의 OPM은 3.8%(-5.4%pt YoY), 1.5%(-2.1%pt YoY)로 전망된다. 아이폰15 판매 부진과 IT수요 약세로 비수기 이상의 실적 부진이 아쉽다.

2024년 고정비는 증가하는 반면, 매출 성장은 불투명

2Q24부터 FC-BGA 신공장이 가동함과 작년 1.8조원에 이르는 설비투자 결과로, 올해 동사 감가상각비는 1.36조원(vs. 작년 1.05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주력 제품인 북미 고객용 카메라모듈의 경우, 올해는 폴디드줌이 2개 모델에 적용되고, 48M 화소가 다른 기능의 카메라에도 더 확대 적용되는 것 외에는 아직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 고가폰 수요가 회복되어 아이폰 판매가 호조를 보이거나, 새로운 카메라 기능에 대한 고객의 투자 의지가 보여야 동사 실적 성장 모멘텀이 나올 것 같다.

목표가 29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나, 현재 주가는 과매도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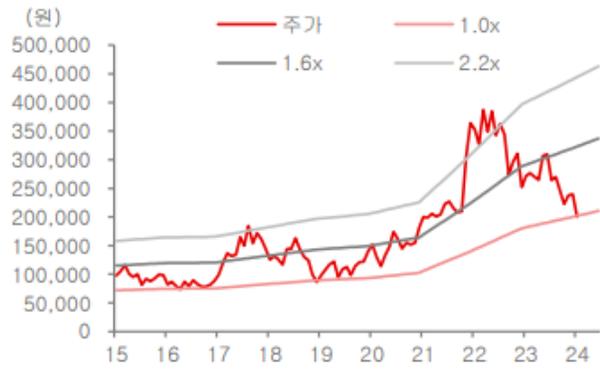
현재 동사 주가는 역사적 Valuation 밴드 최하단 수준으로, 이미 실적 부진 우려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고가폰 수요 회복이나 차세대 스마트폰의 카메라모듈 스펙 관련 호재가 절실하다. 2024E EPS를 26% 하향 조정함에 따라 목표주가를 29만원(P/B 1.3x)으로 하향 조정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Fig. 1: LG이노텍 연결재무제표 요약

	2021	2022	2023F	2024F	2025F
매출액(십억원)	14,946	19,589	20,605	21,743	24,352
영업이익	1,264	1,272	831	779	977
세전이익	1,193	1,135	643	739	957
순이익[지배]	888	980	569	591	718
EPS(원)	37,532	41,401	24,060	24,982	30,337
증감률(%)	276.2	10.3	-41.9	3.8	21.4
PER(배)	9.7	6.1	10.0	8.0	6.6
PBR	2.6	1.4	1.2	0.9	0.8
EV/EBITDA	4.7	3.4	3.8	2.6	2.0
ROE(%)	30.9	25.9	12.7	11.9	12.8
배당수익률	0.8	1.6	1.7	1.9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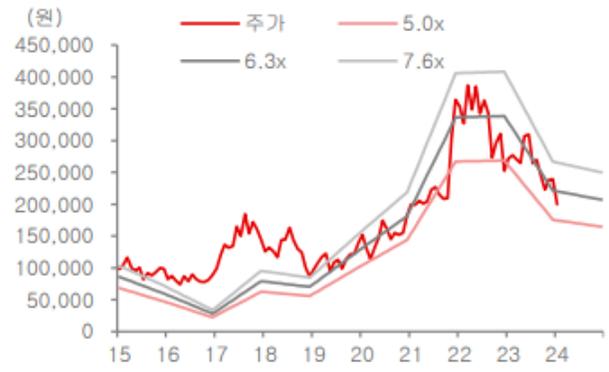
자료: LG이노텍, BNK투자증권 / 주: K-IFRS 연결

Fig. 2: LG이노텍 P/B 밴드 차트



자료: ValueWise, BNK투자증권

Fig. 3: LG이노텍 P/EBIT 밴드 차트



자료: ValueWise, BNK투자증권



---

현대모비스  
양생 중입니다

[\[출처\] DS투자증권 최태용 애널리스트](#)

4Q23 Re: 영업이익 5,232억원으로 컨센서스 하회

4Q23 잠정 매출액 14.7조원(-2.1% YoY), 영업이익 5,232억원(-20.8%)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모듈 및 핵심부품 사업부는 연말 완성차 생산 둔화와 배터리셀의 가격 하락 및 사급 전환으로 역성장했다. 이익 감소는 1) 완성차 볼륨감소, 2) 품질 비용 인식, 3) 임단협 인건비가 주요했다. 특히 품질 비용은 1,210억원으로 ICCU, ACU, 후방 카메라, 하네스 관련 명목이다.

2024F 영업이익 2.7조원으로 수익성 개선 예상

2024F 매출액은 60.1조원(+1.5%), 영업이익 2.7조원(+17%)으로 예상한다. 배터리셀 사급 전환에 따른 매출 축소로 Flat한 매출 성장을 전망한다. 전동화 사업부의 BSA 매출 중 70% 이상이 배터리 셀인 영향이다. 다만, 기존의 총 매출인식 방법을 감안 시 그만큼 마진율은 개선된다. 전동화 사업부의 턴어라운드 속도가 주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배터리셀 가격 약세의 지속과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2025년부터 수익성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024년 완성차 물량 전망치는 Flat한 수준으로 물량효과는 제한적이다. 전장 및 전동화 제품 수주 확대를 지향하는 만큼 믹스 개선 효과로 수익성은 개선될 전망이다. RV, 친환경차 믹스 지속 확대와 상위 트림 및 옵션 채택률 상승에 따른 핵심부품 수혜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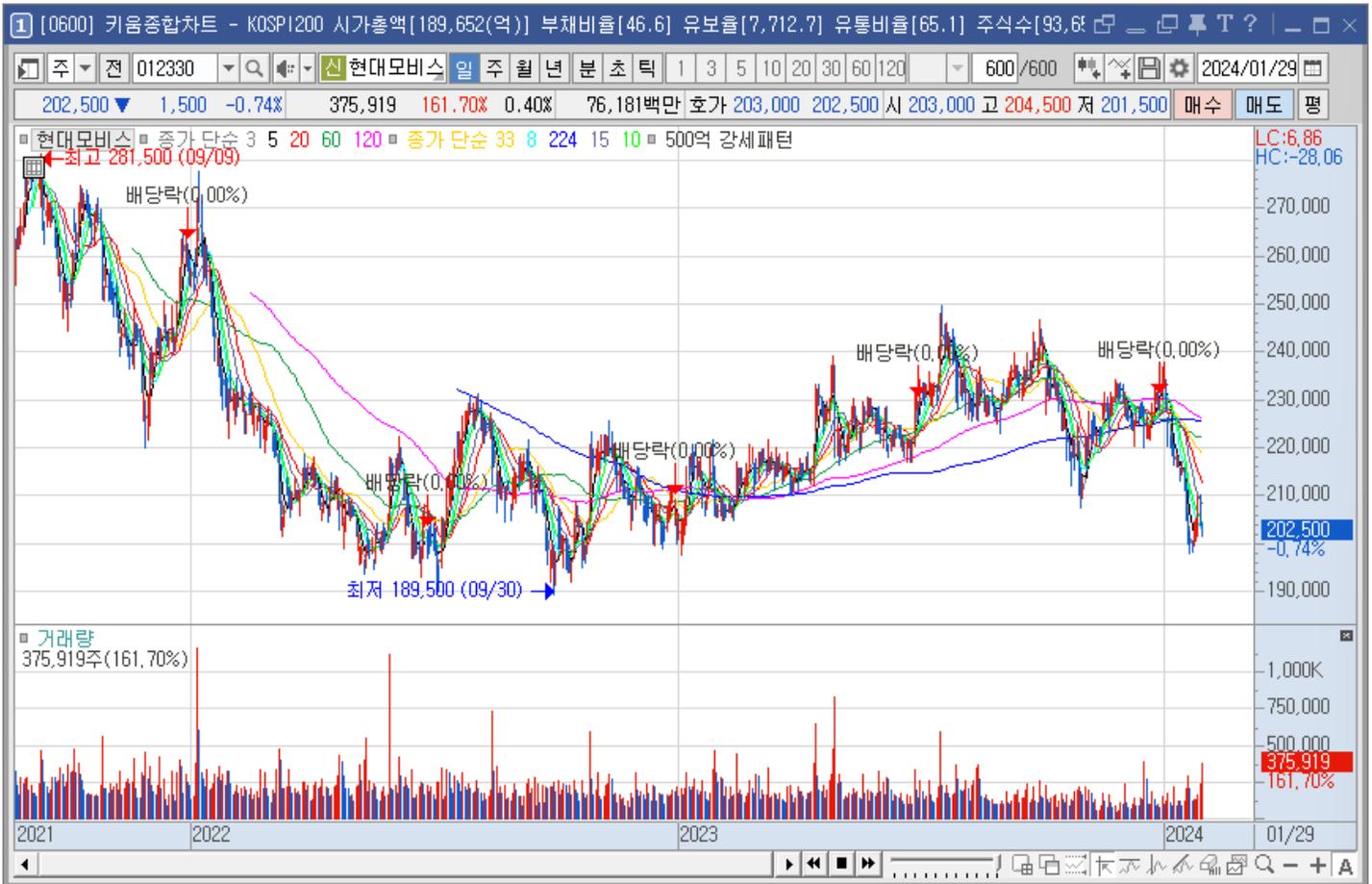
내실을 다지는 해

2024년 Non-Captive 수주 목표는 93.4억 달러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매출 비중도 두 자릿수를 돌파한 만큼 고객사 다각화가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선별적 수주를 통해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매출 인식에 따른 수익성 개선도 기대된다. 수소 사업부는 이관을 논의 중인 상황으로 상반기 내 양수도 완료를 전망한다. 이관에 따른 전동화 사업부 비용 부담 해소를 기대한다. 목표주가 290,000원, 투자이건 '매수'를 유지한다.

### Financial Data

(십억원)	2021	2022	2023P	2024F	2025F
매출액	41,702	51,906	59,254	60,136	62,891
영업이익	2,040	2,027	2,295	2,686	2,864
영업이익률(%)	4.9	3.9	3.9	4.5	4.6
세전이익	3,195	3,363	4,445	5,161	5,282
지배주주지분순이익	2,352	2,485	3,423	3,722	3,947
EPS(원)	24,873	26,359	36,302	39,737	41,864
증감률(%)	54.6	6.0	37.7	9.5	5.4
ROE(%)	6.9	6.8	8.7	8.8	8.7
PER(배)	10.2	7.6	5.6	5.1	4.9
PBR(배)	0.7	0.5	0.5	0.4	0.4
EV/EBITDA(배)	8.2	6.3	4.1	3.1	2.5

자료: 현대모비스,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리파인

저출산 정책과 대한대출 수혜주

[\[출처\] 하나증권 김규상 애널리스트](#)

저출산 2024년 예산안의 58%는 주거서비스에 배정

5대 핵심과제에 대한 2024년 예산안 15조 4천억원 편성 세부적으로 1)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에 8조 9,732억원, 2)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2조 8,887억원, 3)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에 2조 1,531억원, 4)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에 1조 3,245억원, 5)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에 504억원 전체 저출산 관련 예산 중 58%가 주거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용자 지원 등은 지속 확대될 전망

대한대출,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본격 확대

지난해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 신용대출은 5월 시행 이후 약 7개월 간 10만명 이상이 사용했으며, 그 규모는 총 2조 3,778억원 2024년 1월 9일부터는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대한대출도 1월 18일까지 5대 시중은행에 총 9,571건 접수, 신청 규모 1조 5,957억원 전세자금 대한대출은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 예정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잔액은 각각 531조원과 131조원으로, 신용대출 대비 이자 부담이 높아 대한대출에 대한 수요가 더 클 것으로 전망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부동산 권리조사 시장 점유율 90%로 국내 1위인 리파인의 수혜가 예상되는 이유

신규 대출은 곧 리파인의 실적

지속적인 저출산 정책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의 대한대출 시행은 곧 리파인의 실적 성장을 의미 신규 전세 거래에 따른 Q 증가도 중요하지만, 이번 대한대출로 인해 신규 대출이 증가하며 Q 증가가 대폭 이루어질 전망 지난해 역전세난 전세

사기 임대사업자 의무가입 등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도 증가 중 Q 증가에 따라 2024년에도 다시 한번 최대 실적 경신 기대

2024년 매출액 706억원(YoY 12.1%), 영업이익 261억원(YoY 37.0%) 전망

24F P/E 10배 미만 부동산 권리조사의 독보적인 기업으로 저출산 정책과 대환대출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주목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	0	45	54	59
영업이익	0	5	20	21
세전이익	0	7	20	21
순이익	0	5	16	17
EPS	0	416	1,236	1,223
증감율	N/A	N/A	197.1	(1.1)
PER	0.0	0.0	0.0	11.7
PBR	0.0	0.0	0.0	1.8
EV/EBITDA	0.0	0.0	0.0	5.4
ROE	0.0	27.1	44.6	12.5
BPS	0	1,536	2,772	8,136
DPS	500	250	0	0





## LG전자

소비경기 부진에도 안정된 가전 실적, 저평가 상태

[\[출처\] BNK투자증권 이민희 애널리스트](#)

1Q24 영업이익은 QoQ 호전, YoY 감소 모습 예상

연결 기준 1Q24 매출액은 21.31조원(-8%QoQ, 4%YoY), 영업이익은 1.3조원(314%QoQ, -13%YoY)으로 예상된다. LG이노텍을 제외한 본사 실적은 매출액 17조원(5%YoY), 영업이익 1.19조원(-12%YoY), OPM 7%로 전망한다. 사업부별 매출 성장률(YoY)은 H&A 6.6%, HE 2.2%, VS 3.1%, BS 3.1%로 예상하며, 영업이익률은 각각 H&A 11.5%, HE 3.1%, VS 2.3%, BS 1.6%이다. 글로벌 소비 경기 회복 지연으로 2024년 연결 매출액은 4%YoY의 낮은 성장률 지속이 예상되며, 영업이익은 3.61조원으로 전년 대비 flat할 전망이다. 올해 LG이노텍을 제외한 영업이익 역시 2.8조원으로 전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유통 재고는 정상 수준, 업종 내 동사 가전/TV 매출 양호할 전망

작년말 경쟁 심화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며 수익성이 악화되기도 했지만, 현재 가전/TV 유통 채널 재고는 정상 수준에 있다. 소비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가전시장에서 프리미엄 외에 Volume Zone 영역에서 점유율 상승을 지속하며 안정된 실적을 유지할 전망이다. TV 역시 재고조정이 일단락된 점과 파리 올림픽 영향으로 유럽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사 OLED TV 수요의 절반이 유럽향이다.

Valuation 바닥 수준으로 저평가 상태, 투자의견 '매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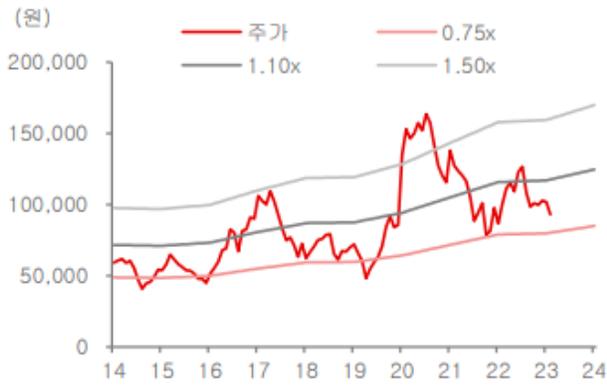
동사 주가는 P/B 밴드 기준으로 역사적 바닥 수준에 있다. 글로벌 소비 경기부진에 따라 매출 성장이 제한되어 있지만, 원가 개선과 적극적 영업전략으로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3만원을 유지한다

Fig. 1: LG전자 연결재무제표 요약

	2021	2022	2023F	2024F	2025F
매출액(십억원)	73,908	83,467	84,228	87,811	94,836
영업이익	4,058	3,551	3,549	3,612	4,003
세전이익	3,839	2,540	960	2,568	3,689
순이익[지배]	1,032	1,196	312	1,294	1,859
EPS(원)	5,705	6,616	1,725	7,158	10,280
증감률(%)	-47.6	16.0	-73.9	315.0	43.6
PER(배)	24.2	13.1	59.0	13.1	9.1
PBR	1.4	0.8	1.0	0.8	0.8
EV/EBITDA	4.6	3.7	4.0	3.7	3.4
ROE(%)	6.3	6.6	1.6	6.5	8.7
배당수익률	0.6	0.8	0.7	0.7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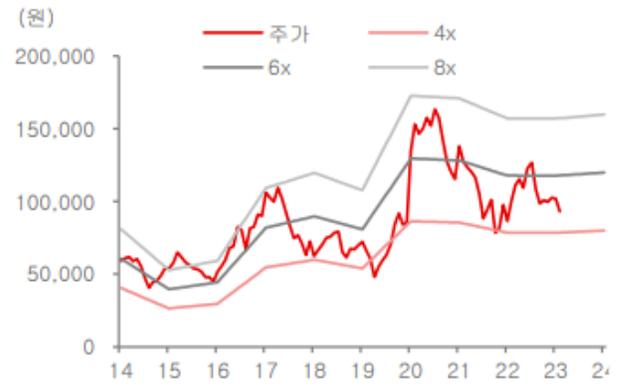
자료: LG전자, BNK투자증권 / 주: K-IFRS 연결

Fig. 2: LG전자 P/B 밴드 차트



자료: ValueWise, BNK투자증권

Fig. 3: LG전자 P/EBIT 밴드 차트



자료: ValueWise, BNK투자증권



## 에스원

안정적인 실적 대비 주가는 저평가

[\[출처\] DS투자증권 김영규 애널리스트](#)

### 4Q23 Review. 매출액 10%, 영업이익 12% YoY 증가

2023년 4분기 매출액 6,941억원(+10.2% YoY), 영업이익 420억원(+11.7% YoY)으로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고 영업이익은 부합했다. 매출액의 경우 수출실 등 법제화 관련 보안상품 매출 증가와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 공장 등에서의 보안 SI 매출 증가가 실적을 견인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환급에 따른 일시적인 수익이 반영되면서 예년 대비 높은 579억원(+105.8% YoY)을 기록했다. 2023년 주당배당금은 2,700원(2022년 주당배당금 2,500원)으로 법인세 환급 효과 제거 시 배당성향 57%를 달성했다.

### 1분기에도 안정적인 성장 가져갈 것

2024년 1분기 매출액 6,772억원(+7% YoY), 영업이익 569억원(+8% YoY)을 전망한다. 올해도 시큐리티 서비스의 안정적인 성장(1Q24F 매출액 6,772억원 +7% YoY)이 예상되며 인프라서비스도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등에서 매출 지속, 신규 부동산 관리 지역 증가 등으로 성장(1Q24F 매출액 3,388억원 +9% YoY)을 지속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 전망이나 이는 지난해 1분기 계열사와의 계약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반영되면서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아직 계약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1분기 추정치에서는 제외했다. 향후 계약 시기 가시화에 따라 반영할 예정이다.

### 저평가 구간. 투자의견 '매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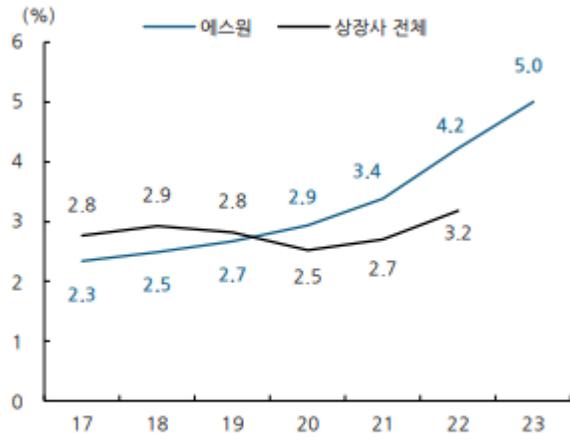
2024년 연간 매출액 2조 7,768억원(+6% YoY), 영업이익 2,229억원(+5% YoY)을 전망한다. 시큐리티 서비스와 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거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와 보수적인 영업환경으로 인해 영업이익을 기존 추정치 대비 소폭 하향했다. 그럼에도 '23년 주당배당금을 200원 증가시키면서 주주친화정책을 확대하는 점과 현금성자산(6천억원 이상)을 활용한 신사업확대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어 동사의 모멘텀은 여전히 높다. 실적 대비 최근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저평가 구간이다.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 Financial Data

(십억원)	2020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2,223	2,312	2,468	2,621	2,777
영업이익	204	180	204	213	223
영업이익률(%)	9.2	7.8	8.3	8.1	8.0
세전이익	187	171	201	215	226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42	129	151	159	173
EPS(원)	3,739	3,395	3,975	4,177	4,548
증감률(%)	-3.1	-9.2	17.1	5.1	8.9
ROE(%)	10.5	9.1	10.2	10.2	10.6
PER(배)	22.7	21.8	14.9	13.0	12.0
PBR(배)	2.3	1.9	1.5	1.3	1.2
EV/EBITDA(배)	8.3	7.6	5.5	4.8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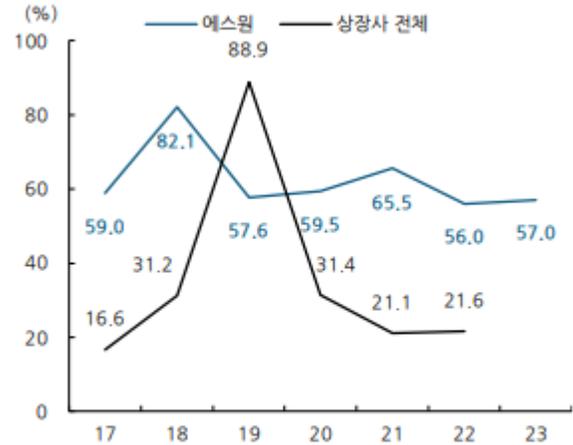
자료: 에스원,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그림1 시장 평균 vs 에스원 배당 수익률



자료: Quantwise,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시장 평균 vs 에스원 현금 배당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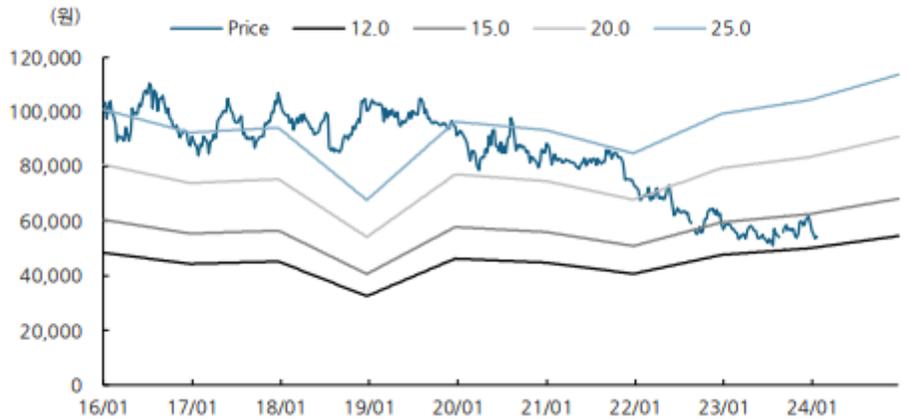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2019년의 경우 에스24의 배당성향이 65,227%로 평균을 크게 해침. 에스24 제외 시 2019년 상장사 전체 배당성향은 32%

주: 에스원의 23년 배당성향은 일회성 수익인 법인세 환급 제외

그림3 에스원 PER 밴드



자료: Quantwise,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현대글로벌비스

복잡해진 물류, 높아진 운임 인상 당위성

[\[출처\] NH투자증권 정연승 애널리스트](#)

더 혼잡해진 물류 환경, 시차를 두고 비용 전가 가능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를 240,000원 유지. 연간 실적 조정폭은 제한적. 자동차운반선 공급 부족,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글로벌 물류 혼잡 영향으로 운임 인상 당위성은 높아짐. 기업간의 계약을 통해 운임 인상을 진행하므로 협상 상황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나, 비용 상승분을 전가할 수 있는 물류 환경  
홍해 통행 제약 이슈로 인해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하였으며, 자동차 운반선의 수급도 여전히 타이트. 현대글로벌비스의 경우, 자동차선 선대 확장을 통해 수송량 확대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운항 거리 증가로 실질 공급력 확대 제약 불가피. 다만 할증료 부과를 통해 이를 운임에 전가함으로써 이익 창출력을 유지할 전망

4분기: 충분히 만회하지 못했던 비용 부담

4분기 매출액 6조5,174억원(-4.3% y-y), 영업이익 3,507억원(-21.3% y-y, 영업이익률 5.4%)로 시장컨센서스를 하회. 기대했던 운임 인상 및 비용 정산이 해운 부문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부정적 환율 영향이 주요 원인  
부문별) 물류: 매출액 2.37조원(-4% y-y), 영업이익 1,668억원(-11% y-y). 내륙 운송 매출은 운임 강세로 양호했으나, 포워딩 부문 매출 감소. 해운: 매출액 1.11조원(-4% y-y), 영업이익 603억원(-33% y-y). 항만 적체로 인한 가용 선박 부족 및 고용선료로 인한 비용 부담 여전. 운임 인상 효과는 24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 유통: 매출액 3.03조원(-8% y-y), 영업이익 1,236억원(-27% y-y)를 기록. 부정적인 환율 영향으로 수익성 감소

	2022	2023P	2024E	2025F
매출액	26,982	25,688	26,660	27,164
증감률	23.9	-4.8	3.8	1.9
영업이익	1,799	1,554	1,768	1,896
증감률	59.7	-13.6	13.8	7.2
영업이익률	6.7	6.0	6.6	7.0
(지배지분)순이익	1,190	1,061	1,229	1,334
EPS	31,729	28,297	32,784	35,566
증감률	52.0	-10.8	15.9	8.5
PER	5.2	6.8	5.2	4.8
PBR	0.9	0.9	0.7	0.7
EV/EBITDA	2.7	2.9	2.1	1.7
ROE	18.8	14.5	14.9	14.4
부채비율	101.7	89.2	76.9	67.7
순차입금	-9	-1,275	-1,617	-2,189

단위: 십억원, %, 원, 배



## 기아

드러난 자신감, 확인된 주주환원정책

[\[출처\] 유안타증권 이현수 애널리스트](#)

4Q23(P): 매출액 24.3조원, 영업이익 2.5조원

영업이익, 당사 추정(2.8조원) 및 Consensus(2.8조원) 하회

4Q23 판매대수는 약 73만대(중국 제외 71만대)를 기록하며 당사 추정인 80만대(중국 제외 78만대)를 8% 하회(중국 제외 9% 하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당사 추정 대비 8%, 11% 하회. 환율, 판매물량, 인센티브 등의 변수가 당사 예상보다 부정적 결과를 시현한 것으로 관측. 주요 변수 변화에 따른 전년동기대비 영업이익 변동폭은 1)환율 -1,790억원, 2)판매대수 증가 +970억원, 3)가격효과 +170억원, 4)Mix 개선 +1,660억원, 5)인센티브 증가 -3,040억원, 6)기타비용 증가 -3,970억원, 7)재료비 감소 +4,420억원 등으로 파악.

2024년, 판매대수 가이드스 320만대(yoy +3.6%)

동사의 2024년 판매대수 가이드스는 320만대. 기저가 낮은 중국과 러시아 권역이 전년대비 +40% 이상의 판매 증가가 예상되고 주요 권역인 북미는 +3.7%, 유럽은 +0.5% 성장 제시. 매출액은 전년대비 +1.3% 증가, 영업이익과 OPM은 각각 +3.4%, +0.3%p 개선될 것이라 밝혀. 당사가 추정하는 기아의 2024년 판매대수는 318만대이며 전년대비 매출액은 +5% 증가, 영업이익과 OPM은 각각 -2%, -0.8%p 감소 및 하락할 것으로 전망. 가이드스와 당사 추정 간의 차이는 2024년 환율(가이드스 1,270원/달러, 당사 1,334원/달러) 가정과 인센티브 및 재료비 전망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

드러난 자신감과 확인된 주주환원정책

글로벌 EV 성장 둔화 및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는 상존. 하지만 ICE 및 하이브리드 등에서 견조한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는 OEM에게는 오히려 EV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어. 동사 역시 수익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가운데 올해 출시될 EV3는 EV 점유율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이와 함께 발표된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통해 동사의 주주환원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

###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십억원, %)

	4Q23P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24,328	5.0	-4.8	25,146	-3.3
영업이익	2,466	-6.0	-13.9	2,826	-12.7
세전계속사업이익	2,526	-3.9	-24.1	2,938	-14.0
지배순이익	1,620	-20.5	-27.0	2,202	-26.4
영업이익률 (%)	10.1	-1.2 %pt	-1.1 %pt	11.2	-1.1 %pt
지배순이익률 (%)	6.7	-2.1 %pt	-2.0 %pt	8.8	-2.1 %pt

자료: 유안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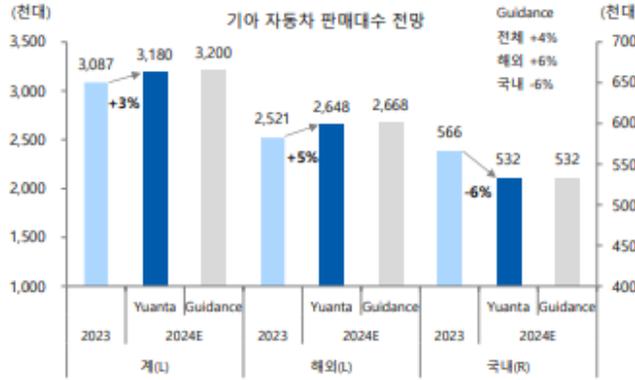
###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십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1A	2022A	2023P	2024F
매출액	69,862	86,559	99,808	104,878
영업이익	5,066	7,233	11,608	11,328
지배순이익	4,760	5,409	8,777	8,765
PER	7.1	5.7	4.6	4.3
PBR	1.0	0.8	0.8	0.7
EV/EBITDA	3.6	2.0	1.5	1.1
ROE	14.7	14.6	20.4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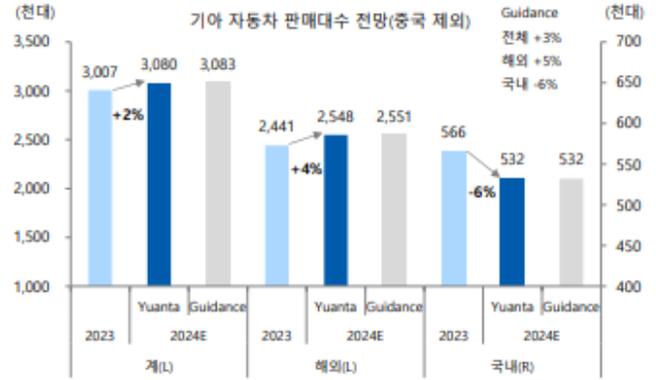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그림-1] 기아 판매대수 전망



자료: 기아, 유안타증권 추정

[그림-2] 기아 판매대수 전망 (중국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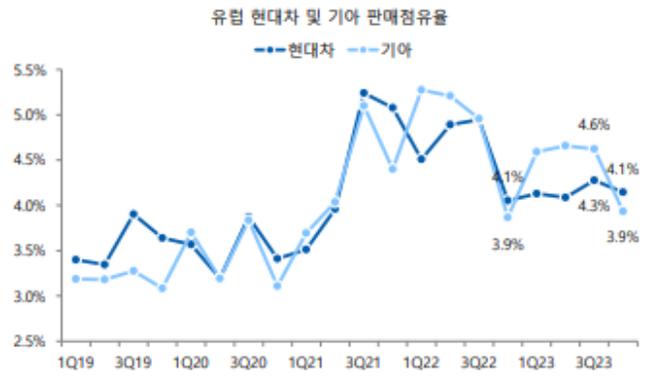
자료: 기아, 유안타증권 추정

[그림-3] 미국 현대차 및 기아 판매점유율



자료: Automotive News, Marklines

[그림-4] 유럽 현대차 및 기아 판매점유율



자료: ACEA, Marklines



99,900 ▲ 5,500 +5.83% 3,183,523 133.59% 0.79% 313,017백만 호가 99,900 99,800 시 94,700 고 100,000 저 94,400 매수 매도 평

